

# 화순군, 8천643억 원 역대 최대규모 예산안 편성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기정예산보다 1천137억 원 증액한 역대 최대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선 8기 들어 2023년 본예산도 7천505억 원으로 역대 최대규모이며, 이번 1회 추경도 역대 추경 중 최대규모여서 화순군의 전체 예산은 8천643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갱신해 총예산 1조 원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은 기정

예산보다 1천137억 원(15.2%)이 증가한 것이다. 일반회계 주요 추경 재원은 지방교부세 등 504억 원 및 국·도비 보조금 223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00억 원 등을 재원으로 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1천86억 원(16.9%)이 증가한 7천499억 원이고,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는 50억 원(4.6%)이 증가한 1천143억 원이다. 총예산은 8천643억 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1천137억 원(15.2%)이

증가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 화순천 꽃강길 조성사업 40억 원, 길성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15억 원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83억 원 △ 지역 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95억 원, 화순 홍수조절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0억 원, 다지리 축구장 개보수 사업 8억 원 등 문화 및 관광 분야 177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 42억 원, 개미산 전망대 조성사업

에 27억 원, 조림지 풀베기 사업 20억 원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73억 원 △반려 동식물 테마파크 조성 대주택 사업에 24억 원, 향정지구 도시재생사업 23억 원 등 국토 및 지역개발에 238억 원도 포함했다. 구복규 군수는 “이번 추경안은 새로운 화순으로 도약하기 위해 문화 및 관광기반을 다지고 청년이 유입되고 살고 싶은 화순을 만들기 위한 예산안”이라고 말했다. /남호경 기자

## 나주시, 농촌서 살아보기 참가자 모집

나주시(시장 윤병태)가 문평 명하햇골 마을에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위한 농촌 살기 체험을 운영한다. 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사업인 ‘2023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거나 계획 중인 도시민이 농촌마을에서 3개월에서 최장 6개월까지 거주, 마을 주민들과의 교류를 통해 영농 지식을 얻고 농촌 생활을 직접 체험해보는 귀농·귀촌분야 정책이다. 올해는 총 6가구, 12명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 신청은 타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도시민 누구나 가능하다. 오는 24일까지 귀농·귀촌 종합센터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로 3년째 사업을 추진 중인 문평명 하햇골

주민들은 귀촌 손님 맞을 준비에 분주하다. 이 마을은 5대째 천연염색 주재료인 ‘쪽’을 재배하는 사회적기업이자 마을 공동체인 ㈜명하햇골을 중심으로 32가구, 55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마을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쪽 베기’, ‘쪽 염색 체험·교육 및 제품 판매’, ‘치유음식·치유농업·치유정원 가꾸기’ 등을 주력 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 해 사업을 통해 마을 숙박동 주방시설 등을 개보수하면서 올해 참가자들에게 더 좋은 귀촌 체험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참가자들은 체류하는 동안 일자리 탐색, 주거지 탐색·결정, 주민 간 융화프로그램 참여 등 농촌에서 다양하고 색다른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숙박은 무료로 제공되며 1인당 매달 30만 원의 연수비도 지원한다. /김동철 기자

## 담양, 골밀도 검사 연중 실시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지역주민의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골밀도 검사장비를 도입해 연중 운영한다. 뼈의 강도가 약해져 쉽게 골절되는 질환인 골다공증은 뚜렷한 증상이 없어 조기 발견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며, 골다공증 환자는 인구 고령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골다공증은 활동량이 감소하는 50대 이후부터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담양군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33%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검사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골밀도 검사는 담양군에 주소를 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검사 비용은 만 65세 이상 여성과 만 70세 이상 남성은 연 1회에 한해 1,100원이며 그 외 주민들은 34,77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장성군이 최근 망암 변이중 선생이 배향된 봉암서원에서 춘향제를 열었다. 황주변씨 문중과 유림, 상무대 포병학교 신중승 대령과 변이중대대장 조원근 중령, 박병진 포병학교 주임원사, 이경래 변이중대대 주임원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장성군 제공

## 장성군, 봉암서원 춘향제 봉행

장성군이 최근 망암 변이중 선생이 배향된 봉암서원에서 춘향제를 열었다. 황주변씨 문중과 유림, 상무대 포병학교 신중승 대령과 변이중대대장 조원근 중령, 박병진 포병학교 주임원사, 이경래 변이중대대 주임원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조선시대 문신인 변이중 선생은 임진왜란 당시 화차를 제작한 인물

로 잘 알려져 있다. 앞서 제작된 문종 화차의 개량형으로, 40정의 승차 총통을 일제히 발사할 수 있는 무기다. 수레 사방에 방호판을 장착하고 그 안에 병사가 들어가 운용하는 방식이다. 일본군의 조총에 맞서기 위해 사재를 털어 300기를 제작했다. 장성군 서삼면과 북이면에서 만들어 서해를 통해 해주로 옮겨졌으며, 해주대첩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춘향제에서 초헌관은 지역구 이개호 국회의원, 아헌관은 소영호 목포부시장, 종헌관은 김형주 삼계고등학교장이 맡아 향사를 봉행했다. 장성군은 현재 봉암서원의 숙원사업인 화차전시관(체험관) 건립을 위한 설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유광중 기자

## 영광, 응급환자 앰블런스 이송경비 지원

### 이송 받았던 환자나 보호자 보건소 방문해 접수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이나 삼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발생하는 응급 차량 이용 경비를 9월부터 영광군에 주소를 둔 주민과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그동안 응급환자가 병원 간 이송 시 특수구급차의 경우 기본요금(10km 이내) 7만5천원과 1km당 1천300원씩 가산되는 비용을 부담했으며, 야간(00:00~04:00)의 경우 20%의 할증요금까지 부담해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됐다. 이에 군은 주민의 긴급 생명보호 및 응급 차량 이용의 고비용 부담을 경감해 원활한 삼급병원 이송을 통한 군민 건강 보호를 위해 앰블런스

이송경비 지원을 민선8기 군수공약 사항으로 정하고 지원하게 됐다. 신청 방법은 응급 차량을 이용해 병원 간 이송을 받았던 환자나 보호자가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접수하면 검토를 통해 이송경비를 지원하며,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 등 타 법령에 따른 보상 대상자는 제외된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군민 한 사람의 생명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응급환자 앰블런스 이송경비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한 병원 간 이송으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되는 영광군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정률 기자



한 적 하고 여유롭게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어디까지?

# 집나가면 '구시'이다

자연속의 가족마을 곡성





곡성여행
검색

2018년 곡성군 시민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